

김지사 “새만금공항, 흔들림없이 총력 대응”

국제공항계획 1심 취소 판결에 “새만금 방조제 사태 반복 없어” 논리 보강...공익적 피해 어필 국회 예타 통과가 사업 분수령 道, 국토부와 대응 협력 꾸릴 듯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만금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공항 건설 당시의 대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9월 정기국회는 기회의 장”이라며 “국회의 흐름에 맞춰 전국의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당부했다.

국회단계에 들어선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 사업을 되살릴 초석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반영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을 갖춰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며 “대정부 질문으로 현안을 부각시키고, 법안 처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둔 주요 사업과 관련, “예타는 대형사업의 첫 관문이자 가장 큰 고비”라며 “논리를 촘촘히 보강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예타 통과 또는 면제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등 도내 경기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핵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만전의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활발한 소통 기조와 관련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발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정방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시책과의 접점을 확대해 도정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연계를 통해 지역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타 시도의 진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전북형 사업모델을 조속히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또 전북도 역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피고인 국토교통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를 건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

다. 15일 도 천영평 기조실장,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등은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향후 법적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전북도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새 논리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장정철 기자

시민단체 “새만금공항 항소 조류충돌 위험 무시 폭거”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지역경제 효과 허구, 취소하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15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고, 즉각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판결로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거짓, 위법, 위험, 부실, 무용, 부당이 낱말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불복하고 항소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류충돌 위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코 공항을 지어선 안 될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를 일으킨 원흉이자 책임을 몰아야 할 국토교통부가 또 다시 조류충돌 대참사를 일으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고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완벽한 허구이자 망상으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막대한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을 지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을 이번 판결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 도내 14개 시군 1만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14일 폐막한 가운데 전주시가 종합 1위, 개최지인 고창군이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사진=고창군>

道,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 공모 선정

익산·남원·완주 3개 시군 선정 총사업비 53억 확보 전국비 14%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결과 3개 시군(익산, 남원, 완주)이 선정돼 총사업비 53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의 1차 평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2026년도 사업 공모에서는 사업을 신청한 전국 51개 시군 중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상위 20개 시군이 총사업비 371억원으로 대상자가 선정됐다.

도는 3개 시군이 총사업비 53억원(전국대비 14%)으로 선정된 가운데 시군별로는 익산시 21억, 남원시 19억, 완주군 13억이다.

민선5기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정착하는데 도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민체육대회 성황리 폐막...전주시 종합 1위

고창서 14개 시군 1만명 참가 ‘최우수’ 전주 오히려 진안 천다혜 차기 개최지 진안군에 대회기 전달

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4일 폐막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2일 고창에서 개막한 이번 도민체전은

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약 1만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 선수 지인 등 많은 방문객들이 고창을 방문, 열띤 응원을 펼치며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이번 도민체전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검도와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씨름, 육상 등 총 39개 종목(정식 37, 시범 2)이 펼쳐졌고, 선수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

했다. 경기결과 전주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개최지인 고창군이 종합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군산시에 돌아갔고 4위와 5위는 각각 익산시와 정읍시가 차지했다.

올해 대회를 빛낸 최우수선수는 일반부에서는 수영에서 4관왕에 오른 오히려(전주)씨가 학생부에서는 육상 2관왕인 천다혜(진안)양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이날 폐회식은 종합시상을 비롯해 차기 도민체전 개최지인 진안군에 대회기가 전달됐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체육으로 하나되는 도민체전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종목 확대 등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며 “이번 도민체전처럼 도민들이 땀을 뭉치던 2036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전날 추미에 법사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이어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 아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극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

체가 불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그리고대 단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법관들이 나서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라고 압박했다.

<2면에서 계속>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축제 홈페이지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시

2025. 10. 09. (목)

- 10. 12. (일)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특설무대)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

전북, 대한민국명장 첫 배출...도자공예 진정욱 '영예'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출신 최초 후진 양성·도예문화 확산 공로 15년 경력 도예기술 인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도자공예 분야) 진정욱 대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명장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출신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오른 첫 사례이자, 도자공예 분야에서 전북 출신 명장이 탄생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명장은 15년 이상 해당 직종에 종사하며 뛰어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산업 발전 및 후진 양성에 기여한 숙련기술자에게 주어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영예로운 칭호다.

진정욱 대표는 전북 고향 출신으로, 대학 시절 분청사기의 독창적 기법에 매료되어 도자공예에 본격 입문했다.

2000년 대학 재학 중 도예공방 "봉강요(완주 소양 소재)"를 설립해 창작 활동을 이어왔으며, 수천 점의 사발을 제작하며 물레성형 기법에서 완속함을 이뤄냈다.

그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전북 도자기 기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고, 2009년 최연소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이후 심사위원·평가위원 활동을 통해 후진 양성에도 도예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특히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수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대한민국명장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최고 장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대해 진정욱 대표는 "도예 분야에서 50대 초반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는 3040세대 도예가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특히 전북에서 도예 분야 명장이 최초로 배출된 점은 지역 도예가들에게도 가능성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도자공예 분야) 진정욱 대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대한민국명장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었다"고 말했다.

또 "도예는 물질적 보상과는 거리가 먼 길이지만, 역사와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정진하는 도예가들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며 "40~50대에도 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후학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출신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것은 도내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우수 숙련기술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익산 부송데시앙, 주부모니터단에 긍정 평가

내부 마감·설계 만족도 높아 개선 사항 즉시 보완 약속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가 시행하는 부송데시앙 아파트가 주부모니터단 5기의 품질 점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분양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송데시앙 아파트는 100%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 내 높은 신뢰도와 인기를 입증했다.

주부모니터단 5기는 지난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부송데시앙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대 내부 마감 상태, 위생 설비, 도장 등 다양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점검에 참여한 주부모니터단은 "세대 내부 공간 설계와 마감 상태가 기대 이상으로 우수해 실제 입주자 더욱 기대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주부모니터링을 통해 각 세대별로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고 일대 내부 마감 상태, 위생 설비, 도장 등 다양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점검에 참여한 주부모니터단은 "세대 내부 공간 설계와 마감 상태가 기대 이상으로 우수해 실제 입주자 더욱 기대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익산 부송데시앙은 총 745세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용면적 84㎡ 단일평형 3가지 타입으로 공급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북개발공사와 시공사가 즉각적인 보완을 약속했다. 특히 주부의 섬세한 시각

으로 생활 동선과 실사용 편의성, 정결 상태까지 직접 확인한 점이 현장 분위기를 한층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한 주부모니터단 참가자는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니 집의 마감과 설비, 동선 등 모든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쓴 점이 인상적이었고,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는 신뢰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주부모니터단이 주부의 입장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향후 입주자 사전방문, 주부모니터단의 추가 점검, 전북특별자치도 품질검수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익산 부송데시앙은 총 745세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용면적 84㎡ 단일평형 3가지 타입으로 공급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북개발공사와 시공사가 즉각적인 보완을 약속했다. 특히 주부의 섬세한 시각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도민체전서 올림픽 유치 홍보부스 운영 '호응'

14개 시군 선수·관람객 대상 참여형 이벤트로 관심 확대 코리아오픈 등 후속 홍보 이어가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고창에서 열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최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기원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39개 종목 임원 선수단과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전북의 스포츠 역량과 국제행사 개최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홍보부스는 고창군 공설운동장 내 종합 안내 구역에 설치되어, ▲올림픽 유치 소개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됐다. 특히

개회식 전에는 올림픽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경기장 안팎에 유치 기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도 진행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는 도민들 사이에 합류해 올림픽 유치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서세원 전북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과장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통해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도민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특히 이미 도민들 사이에서는 올림픽 유치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도민 자긍심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도내 홍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전국에 홍보를 집중해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12일 고창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전 개회식에서 김관영지사(사진 좌)와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도민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전북도>

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체전에 이어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수원), 한우량사과랑축제 등 9월과 10월에 열리는 국내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올림픽 유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정 대표가 이같이 조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은 조대법원장이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입법 사항이 위헌이나"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전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장회의에서 부정적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대상" 추미애 "조희대, 헌법수호 핑계 내란세력 재판지연해 보호"

의견이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법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내란법 구속 취소 등 추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제6회 지니포럼서 금융·AI 융합 논의

25~26일 전주서 글로벌 경제 행사 청소년·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금융 토크콘서트·컨퍼런스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5~26일 전주 라한호텔과 전주대학교에서 글로벌 금융·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제6회 지니포럼을 개최한다.

지니포럼은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제6회 포럼에서는 '초연결시대, 금융·AI 융합이 바꾸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금융 전문가와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금융 트렌드와

AI 융합 기술의 미래를 논하게 된다. 행사는 25일 라한호텔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식에는 국내외 금융·경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와 지니어워즈 시상식을 진행한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청소년 금융 골든벨이 열려 청소년들이 금융 기초지식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후에는 금융 유튜브 버 영상 LS증권 이사와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이 나서서 '지니포럼 금융토크콘서트'가 진행돼, 100세대 금융지식 쌓기, 고변동성 시대 생존 전략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들을 다룬다.

이와 함께 대학생 대상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및업, 청년층을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비즈 및업, 금융·핀테크사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국제금융컨퍼런스, DAF금융 혁신세미나, 금융토크콘서트는 지니포럼 공식 홈페이지(genieforum.net)를 통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참가 또한 가능하다.

지니포럼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지니포럼은 도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성윤, 전북 투자진흥지구 세제 지원 법안 발의

전북특별법 연계 조세특례 개정 도지사세제·부담금감면 권한 부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들 입주기업들의 법내에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전북의 기업 투자·유치를 증진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그러나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범조항은 없어,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들은 바로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전북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전북의 대표적인 썬크랭크인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추진한 '전북발전4법' 중의 3.4번째 법안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입법기관과 지역 내 연구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군산시 공고 제2025 - 1988호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의제사항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 09. 16.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나. 사업예정지 : 군산시 구암동 63-69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군산시 시청로 17)
마. 사업기간 : 2025년 6월 ~ 2028년 5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구도	유번호	면적(㎡)	가능	안정(㎡)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계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소로	2	296	6-8	국지 도로	388	구암동 316-71 대로3-6	구암동 63-46 소로3-289	일반 도로	-	전북도1135 (87.10.22)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소로	2	296	6-8	국지 도로	300	구암동 316-71 대로3-6	구암동 63-43	일반 도로	-	전북도1135 (87.10.22)	· 변경
폐지	소로	2	295	8	국지 도로	61	소로2-296	소로2-297	일반 도로	-	전북도1135 (87.10.22)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나. 방제시설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사선명	사선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변경	변경후		
신설	A	유수지	유수시설	군산시 구암동 8-3 일원	-	증 8,673	8,673	금회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유수지 결정
신설	B	유수지	저류시설	군산시 구암동 60 일원	-	증 7,009	7,009	금회	

다. 환경기초시설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조서 - 간선하수도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사선명	위 치			안정(㎡)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중 점	주요 경계지				
신설	00	하수도	구암동 55-62도	구암동 601-39번	-	15	1,914	금회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하수도 결정 · 중부결정 : 종로1-4, 대로2-4, 종로1-5, 대로3-6, 종로3-10, 소로2-297

- 3. 관계도서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4.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5. 09. 16. ~ 2025. 10. 01.(15일간)
- 5. 의견제출 장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계(☎063-454-3513)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농관원, 성수품 원산지 식별 등 특별 단속

오는 10월 2일까지

선물·계수용품·전통시장 등 대상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 진행

전북농관원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계수용 및 농식품, 인산질 등에 따른 성수품 원산지 식별 특별 단속을 펼친다.

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 16일 동안 계수용품 육류·과일류·나물류 및 선물용품, 지역유명 특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의 특별단속은 선물·계수용품·제조·가공·유통업체·전통시장 등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형사처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 행위(형사처벌)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과태료)를 중점 점검한다.

전북농관원은 특히 단속을 통해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계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 도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성실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매 시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폐렴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사용자 편의 홈페이지 오픈

전북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렴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입원한 만 18세 이상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100%)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100%)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 배양검사 실시율(100%) 등 주요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진료 정확성과 신속성을 입증했다. 또 객담배양검사 처방률(97.3%), 첫 항생제 투여율(98.2%)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결과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대병원이 표준화된 진료 프로세스와 다학제 협력체계를 강화해온 결과다.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폐렴은 고령 환자에서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인 만큼 초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진료 질 향상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지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전북대학교병원은 환자 배양검사 실시율(100%) 등 주요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진료 정확성과 신속성을 입증했다. 또 객담배양검사 처방률(97.3%), 첫 항생제 투여율(98.2%)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결과를 달성했다.

이전 성과는 전북대병원이 표준화된 진료 프로세스와 다학제 협력체계를 강화해온 결과다.

/정소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 정상화 달성 “전사적 노력”

비용 절감·조직·인력 효율화 비상경영체제 선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며 경영 위기 극복 위한 고강도 혁신을 펼치고 있다.

LX공사는 2022년부터 영업직자가 계속 확대되자 어명소 사장 취임 직후 비상경영체제(‘23.11.)를 선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본틀 마련에 주력했다.

△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먼저 LX공사는 건축예산 운영체제로 돌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임원진 임금 20% 반납, 관리자 5~10% 반납,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24), 각종 수당 절감 등 인건비를 줄이는 데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류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회합·명예퇴직(104명), 무급휴직(53명) 등을 통해 운영 인력을 단계적으로 적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본부(13개→11개)와 지사(156개→145개)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 신사업 발굴 통한 매출 확대
LX공사는 신사업 발굴을 위한 매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업개발

처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위탁관리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특히 사장이 직접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SOC 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 기반 융·복합 사업을 제안하여 286억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정소민 기자

△ 4년 내 경영 정상화 ‘총력’

LX공사의 경영 위기는 주력사업인 지적축량이 건설·부동산의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에 따른 구조적·장기적 한계로 판단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LX공사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매출 확대,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등 경영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에 822억이던 영업이익자를 2025년 500~600억, 2026년 400억, 2027년 100억원대로 줄이고 2028년엔 영업흑자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LX공사는 이러한 로드맵을 착실히 수행하여 전 직원의 고충을 보장하면서 4년 내 경영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사장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 대응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단단한 LX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점검

향후 운영계획 청취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각종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15일 점검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221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작은도서관, 옥상정원, 주민커뮤니티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관·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정위원들은 각종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연 최대 150만원 이자 지원 10월 31일까지 접수

전주시는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8900만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다.

신청한 달 기준 1년 이내 납부한 전세

자금 대출이자(2024년 10월~2025년 9월)에 대해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부부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일·전세) 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가격 불안정과 금리상승으로 가중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01억원 부과

총 138천여건(601억원) 부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억 증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 부과

전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3만8000여건(60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주택(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억원이 증가했다. 증가분은 개별주택(1.36%)과 공동주택(5.16%), 공시지가(1.33%)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CD/ATM(타행기기 이용시 수수료 별도 발생)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 △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조기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파트 안내방송 △교통전광판 △납부 홍보 거리 캠페인 △현수막·입간판

△전주시 SNS(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노쇼사기 ‘중계기 관리책’ 검거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

대는 노쇼사기 관련해 해외에서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에서 걸려오는 휴대전화번호로 변장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휴대용 중계기 관리책 1명을 검거해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25.6월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사기 조직은 피의자에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관련 농약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제복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와 단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 구매해 주면 농약대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전화와 함께 위조된 소속기관 명의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모두 1억77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위 노쇼 범죄조직 지시를 받아 휴대폰 중계기를 구축해 해외발신번호가 국내번호로 변장되도록 하여 위 범죄조직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관리한 총 12대의 중계기를 통해 전국에서 총 30건, 피해금 7억8000만원 상당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전북청 형사기동대는 도내에서 발생한 다액 노쇼 사기사건 7건을 경찰사에서 이관받아 전담팀을 구성,

집중 수사했다.

이관 사건 중 공무원을 사칭한 본건 노쇼사건에 사용된 전화번호들의 상호 유사성을 분석, 총 12개의 휴대전화번호가 피의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휴대폰 중계기를 관리한 피의자를 특정·검거했다.

검거 후 전담팀을 사칭한 노쇼사기 사건 중 피의자가 관리한 중계기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사건을 조회·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관리한 12대의 중계기에서만 모두 30건의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노쇼사기 예방 위한 당부 사항으로 “주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이 때 명함, 사업자등록증, 공문 등 서류만을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중계기를 통해 해외발신번호를 변장하기 때문에 국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노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화내역, 문자,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형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모집

민·관 메타버스 협력 플랫폼 구축 XR·메타버스 기술융합 생태계 조성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형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덕진권역 활성화와 XR·메타버스 기반 기술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얼라이언스는 지역 기업과 수도권 협

력사, XR기술 공급·수요기업,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라이프 분야(문화·생활 서비스) △지역 현안 해결 분야(일자리·도시문제 대응)가 주축이다.

각 프로젝트별로 4개 내외 기업 및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기획안을 발표하고 발표하며, 시와 진흥원은 국가 예산 공모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행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진흥

원 누리집(www.jica.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부 양식을 확인 후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은 9월과 10월 최종 기획안 발표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얼라이언스에 선정된 과제는 향후 국제과제 지원과 지역 연계사업으로 발굴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

/정소민 기자

신협, '아시아신협포럼' 글로벌 리더십 강조

22개국·5백여 대표단 금융포용 논의·조합원 자산 보호 성과 등 공유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필리핀 마닐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신협포럼' 및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주최, 필리핀 NATCCO-PFCCO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Cooperatives Build a Better World)' 주제로 아시아 22개국 500여명 대표단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포용 △지역 사회 발전 △청년·여성 리더십 △지속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겸 ACCU 회장은 개회식에서 "협동조합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존엄과 형평, 공유된 번영을 기반으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운동"이라며 "회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 신협은 포럼에서

주요 사례 발표와 기조강연으로 주목받았다. 13일 분과세션에서는 예금자보호기금과 경영합리화지원자금 제도를 소개하며 위기 신협의 선제적 회복과 조합원 자산 보호 성과를 공유했다. 이상윤 신협중앙연수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신협의 교육·연수 시스템과 자격제도를 소개하며,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 신협은 ACCU 회장국으로서 아시아 22개국 36000여개 신협 5530만명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세계신협협의회 이사국으로서 전 세

계 104개국 75000여개 신협과도 긴밀히 협력 중이며, 신협중앙연수원은 아시아 대표 신협 교육기관으로 국제 연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아시아신협포럼은 협동조합 리더들이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라며 "한국 신협은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 실현과 아시아 신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신협연합회(ACCU)는 1971년 설립된 국제신협 단체로, 아시아 지역 신협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목표로 매년 아시아신협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

K-배터리 산업 활성화 ESS안전사고 예방 등 기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안전부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경영 분야의 포상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총 20개 기관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세계 최초로 AI-IoT 기술을 활용한 ESS안전관리 플랫폼을 구

축해 ESS안전을 확보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실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ESS 안전 빅데이터를 국내 ESS 배터리 3대 제조사 삼성 SDS,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함께 분석·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 ESS 안전사고 예방, K-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 국가경제 회복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 미션 수행은 기본이며, 국정과제 이행을 선도할 수 있는 전기안전 지식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유럽 GBC-Gateway' 참가기업 모집

유럽 현지서 공동연구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KIST 유럽연구소'가 공동 추진하는 '유럽 GBC-Gateway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유럽 시장 안정적 진출을 위한 것으로 기획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GBC란, (Global Bio-Technology Collaboration Center,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 모집 기간은 9월 26일까지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독일 잘란트주 자브뤼켄에서 진행되는 현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참여 기업은 △글로벌 투자 유치 대비 IR 고도화 컨설팅 △현지 연구소 맞춤형 기술 교류 △독일 잘란트주 소프트웨어 워크숍 참가 △유럽 투자자 IR 피칭 및 네트워킹 등 꼭 필요한 핵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본 프로그램은 향후 국제협력 연구 기획과제 지원사업 등 후속 프로그램과도 연계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유럽을 바이오산업의 전략시장으로 삼고, GBC(Global Business Center)가 글로벌 진출 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 도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은 15일 전북지방조달청 1층 교육장에서 전북 지역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조달청, '공공조달 길잡이' 기업 판로 지원

이노비즈기업 대상 설명회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15일 전북지방조달청 1층 교육장에서 전북 지역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나라, 혁신제품, 다수공급계약(MAS) 등 공공조달 제도 안내와 함께, 실제 성공사례 공유 및 나라장터 시스템 활용법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지역 10여개 이노비즈기업이 참석해 실질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에로사항을 공유하고, 계약 절차, 제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지역 기업이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 고구마 '통채루' 근력 개선 효과 확인

근육분해 억제·생성 촉진 기능성 소재 개발 청신호

고령화 시대 근감소증(근육량, 근력, 근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체 노화에 따른 △활동량 저하 △영양 불균형 △만성질환 등이 겹쳐 나타나는 근감소증은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며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고구마 식물체의 다양한 효능을 탐색했으며, 결과로, 국산 개발 품종인 체소용 고구마 '통채루(잎, 잎자루, 줄기)' 지상부 추출물이 근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립식량과학원 발효공학식품과 연구진이 근육세포에 '통채루' 줄기와 잎 추출물을 처리 시 근육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은 증가하고, 근육세포 분해

에 관련된 단백질 발현은 억제돼 근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동물실험 경우, 근감소를 유도한 실험군에 '통채루' 추출물 투여 시 근 위축으로 줄어든 제지방량 비율이 정상군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됐다. 근육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엘디에이치(LDH)와 시파케이(CPK) 수치는 각각 34.7%, 23.4% 감소했으며, 장딴지근과 대퇴사두근의 근육 단면적은 각각 14.8%, 41.5% 증가했다. △LDH(Lactate Dehydrogenase) 세포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CPK(Creatine Phosphokinase) 혈액 내에서 측정되는 효소의 양을 나타내는 것. 근육 분해와 관련된 마커 단백질 (Atrogin-1, MuRF-1, ubiquitin) 발현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했고, 반대로 근육 합성과 관련된 단백질(MHC, MyoD, MyoG) 발현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고구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식물체의 다양한 효능을 탐색했으며 결과로, 국산 개발 품종인 체소용 고구마 '통채루' 지상부 추출물이 근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마 지상부 추출물에 근육 분해 억제와 근육 생성 촉진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오미자 추출물은 근력 개선 기능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구축을 강화해 다양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발효공학식품과 송진 과

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구마 잎과 줄기를 근력 개선 기능성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발표 기술 접목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 구축을 강화해 다양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2025 전기안전 R&D Week' 개최

전기안전 분야 14편 발표 글로벌 교류의 장 마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안전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지난 9~11일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와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2025 전기안전 R&D Week'을 열었다. 전기안전 R&D Week는 제17회 국제전기안전세미나와 제1회 G-SAFE(전력망-에너지저장 안전 연합 포럼)를 연계해 국내 최대의 전기안전 R&D 행사로 3일간 진행됐다. 지난 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전기안전세미나는 남화영 사장과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전력연구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세종대학교 부총장, EU 참사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이 등 해외 7개국 전기안전 기술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책세션과 기술세션으로 구분돼 전기안전 분야에 관한 14편(국내 7편, 국외 7편)의 전문 발표가 진행됐다. 정책세션 발표는 국내·외 전기안전 정책에 대해 △EU Walter VAN HATTUM 참사관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전력연구원 심은보 원장의 에너지 R&D 정책 등 총 4건의 발표가 있었다. 기술세션 발표는 '에너지전환' '전력망 다변화' '기후테크'를 주제로 △동경전력 요이치로 타시로 박사의 제사용 및 재활용 배터리 산업동향 △LS Electric 류재섭 팀장의 차세대 산업 전력솔루션 등 총 10건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1회 G-SAFE는 Grid Storage Alliance Forum for Electrical Energy 약자로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등 전기 에너지 분야의 이슈사항에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공동연구 아이템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지난 9~11일 '2025 전기안전 R&D Week'을 열었다.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남화영 사장은 "금번 전기안전 R&D Week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 전문가와 에너지전환, 전력망다변화, 기후테크 등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전기안전 분야의 기술력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 운영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중기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할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지금까지 3700여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120개 운영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30개사 내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중기부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팁스가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량 있는 운영사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며 "우수한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유입돼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 많은 성장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 농·축협 감사업무 컨퍼런스' 청렴 문화 확산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삼형)은 2025년 '전북 농·축협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두주공제 마음을 담아 상호 소통을 통해 사고예방 공감대 형성과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 및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전북 농·축협 감사업무 책임자 100여명이 12일 농협 전북본부 대회의실에 참석한 가운데 △농협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사점감사 업무 방법 및

내부통제 제도 교육 △최근 농·축협 사고사례 공유를 통한 중점 점검사항 지도 △감사업무 내실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상호토론 및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검사국 김삼형 국장은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통해 농·축협 감사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발맞춰 학업 설계 지원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 중요” 50명 대상 맞춤형 진로·학업 상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고등학교 1학년의 과목 선택 및 체계적인 학업 설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주 진로진학센터에서 ‘고1 대상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상담은 고1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2학년 때 학습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학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학습 경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입지원단,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교사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1인당 약 45분 내외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적성을 파악하거나 2학년 이후 과목선택 및 대입 전략과 학습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상담에 참여한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이 상담 선생님의 전문 지식과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 덕분에 그동안 가졌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1 대상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오는 20일부터 21일에도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도내 농어촌 지역 고1 학생을 위한 ‘농어촌 고교 방문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20일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고등학교 1학년의 과목 선택 및 체계적인 학업 설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터 11월 15일까지 전문 상담 지원단이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코칭받아 진로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코칭받아 진로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제16회 익산여성영화제 17일 막 올려

공공영상미디어센터서 19일까지 총 11편 상영

올해로 16회를 맞은 익산여성영화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린다.

영화제는 농촌이민여성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익산YWCA, 전북인아이롭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화바람, 한국문화교육협회 익산지부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사람들이 협력해 운영된다.

영화제의 슬로건은 ‘사라지는 목소리를 비추다’로 여성의 시선과 이야기를 담거나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 총 11편을 상영한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 관객이 영화에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영화제 첫 날인 17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핏줄과 밥줄로 얽힌 대가족의 70년 묵은 비밀 ‘장손’과 세상의 희망을 길어낸 여자들의 이야기 ‘열개의 우물’이 상영된다.

18일은 오키나와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 ‘나란한 섬’과 외국인 투자기업과 폐업 투쟁을 담은 ‘유타갈 노동자 투쟁 속보’가 상영된다. 이어 기후 변화가 재난으로 치달은 상황 속 연대의 가치를 그려낸 ‘바로 지금 여기’와 한국 사회의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세밀하게 담아낸 ‘럭키, 아파트’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제 첫 날인 17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핏줄과 밥줄로 얽힌 대가족의 70년 묵은 비밀 ‘장손’과 세상의 희망을 길어낸 여자들의 이야기 ‘열개의 우물’이 상영된다.

18일은 오키나와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 ‘나란한 섬’과 외국인 투자기업과 폐업 투쟁을 담은 ‘유타갈 노동자 투쟁 속보’가 상영된다.

이어 기후 변화가 재난으로 치달은 상황 속 연대의 가치를 그려낸 ‘바로 지금 여기’와 한국 사회의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세밀하게 담아낸 ‘럭키, 아파트’를 만나볼 수 있다.

주요 학부(과)별로는 △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 20명 모집 2,199명 지원 109.95대 1 △실용음악학부 연주(기타) 10명 모집 537명 지원 53.7대 1 △실용음악학부 싱어송라이터 10명 모집에 379명 지원 37.9대 1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



다.

19일 영화제 마지막 날은 ‘디-데이, 프라이데이’와 ‘옥수수’, ‘겨레와 인류의 영광을 위해’가 차례로 상영되며 남녀가 함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지구 최후의 여자’와 공단에 취업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이야기 ‘3학년 2학기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익산여성영화제 관계자는 “슬로건 ‘사라지는 목소리를 비추다’가 보여 주듯 이번 영화제는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일상의 차별과 침묵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영화를 통해 다시 드러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며 “기후위기, 돌봄, 노동, 쿼 등 다양한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영화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매 없이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833-0676으로 하면 된다.

한편, 모든 영화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매 없이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833-0676으로 하면 된다.

한편, 모든 영화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매 없이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833-0676으로 하면 된다.

한편, 모든 영화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매 없이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833-0676으로 하면 된다.

전북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머리 맞대

정책 포럼 개최·사회적 인식 확산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습과 정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교사와 전문가, 학부모 등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교육청은 1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의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실천적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이며, 적응능력이 어려움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말한다.

이에 학습 지원을 넘어 정서·사회성 발달까지 통합적으로 돕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의 과제와 정책적 대안(정하나 교수, 명지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박정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초등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례 및 제언(박명원 교사, 감곡초)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례 및 제언(박동혁 교사, 설천중) △느린학습자 부모의 눈으로 본 학교 현장 지원 과제(최수진 대표, 느린소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사회적 인식을 확

산하고, 교사·전문가·정책 담당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단순히 학습이 느린 것이 아니라, 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사와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자신감과 사회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자치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확산 앞장

문화관광재단-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 성평등 협약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대표 김혜영 소장)와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보호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자문 △조직 내 관련 사안 전문 컨설팅 제공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인력 연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이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내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관광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상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문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최영규 본부장이 협약을 맺고있다.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호원대, 내년도 수시모집 도내 최고 경쟁률 경신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전형 568명 모집에 7,470명으로 경쟁률 13.15대 1, 전체 857명 모집에 8,288명 지원으로 경쟁률 9.67대 1로 전북 도내 최고의 경쟁률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형 전체 학과 중 경쟁률 상위 학과는 실용음악학부 총 115명 모집에 4,847명 지원으로 42.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요 학부(과)별로는 △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 20명 모집 2,199명 지원 109.95대 1 △실용음악학부 연주(기타) 10명 모집 537명 지원 53.7대 1 △실용음악학부 싱어송라이터 10명 모집에 379명 지원 37.9대 1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

공 19명 모집 291명 지원 15.32대 1 △호텔의식조리학과 29명 모집 450명 지원 15.52대 1 △물리치료학과 27명 모집 363명 지원 13.44대 1 △간호학과 63명 494명 지원 7.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수시모집 간호학과, 스포츠무도학과에 지원한 수험생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용음악학부, 공연미디어학부, K-POP학과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기 고사를 실시한다.

또한 수험생 편의를 위한 실기고사 예약제를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하며,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성민 기자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



컴퓨터 10분이상 미사용 시 절전모드 사용



실내온도를 3도 낮게 설정하면 약20% 절전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사용하면 최고45% 절전



전구식 형광등으로교체 하면 70%적립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양치질, 면도할때 물 잠 귀서 38% 에너지 절전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 열며 생애주기별 부스 37개 운영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군산 희망복지박람회'가 오는 19일과 20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희망복지박람회에서는 '복지, 일상이 되다!' 주제로 박람회 첫날인 19일에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리며,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박람회장에선 △보건·의료 △아동 △청소 △장애인 △노인 △지역 사회 6개 영역의 생애주기별 부스 37개가 운영되며,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외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각 복지시설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6개의 야외 부스가 운영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희망복지박람회가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 "시민들이 박람회를 통해 유용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19~20일까지 영등공원서 얼룩페스티벌 개최

시원한 맥주와 흥겨운 공연으로 익산을 들쭉이게 할 얼룩페스티벌이 돌아왔다.

익산시는 '2025 다다영등 얼룩페스티벌'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영등공원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하이 트린조와 협업해 신선하고 시원한 맥주가 준비되고, 영등 상권에 있는 다양한 매장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축제로 꾸며진다.

19일 개막행사에는 임창정의 미니콘서트와 치타의 폭발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20일에는 배아현의 흥겨운 트로트 공연과 김태우의 감미로운 발라드가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행사장 내 부스에서 지역화폐 '다리로움 카드'로 결제하면 10% 추가 적립이 제공돼 이달부터 적용 중인 충전 혜택(센티브) 13%와 합해 최대 2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민사랑증 발급·소지자에게는 다다영등 즈스 또는 먹거리 할인쿠폰 등이 제공된다.

이용선 영등상권 상인회장은 "얼룩페스티벌은 영등 상권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도 흥겨운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으니 많은 분이 오셔서 축제를 즐기고 상권 내 점포도 활발히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북면·임암면 등 6개 지구 204ha 조림지 풀베기 사업

정읍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어린나무 성장을 돕기 위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북면, 임암면, 웅동면, 산외면 등 6개 지구 204ha의 조림지에서 묘목 주변 풀베기와 덩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풀베기 사업은 조림 직후 초기 생육 단계에 있는 나무들이 햇빛과 수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잡초와 덩굴류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어린나무의 생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숲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지난 7월 207ha의 1회차 풀베기를 완료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2회차 사업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산림경영 단계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풀베기는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자 탄소 흡수량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어린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정읍의 미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산림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청년 정책 '전국 인정'

청년친화환경대상 '종합대상'...주거문화등 종합지속가능 정책 성과

익산시가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전국적 인정을 받았다.

익산시는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청년친화환경대상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념행사는 지난 13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청년친화환경대상은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의 삶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익산시의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익산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지원 △창업 전 주기 맞춤형 지원 △주거 부담 완화 정책 △문화·여가·소통 공간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청년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올해 청년경제국과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청년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전업청년 웰컴박스 △문화예술 패스 지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지원 사업 등 신규



여가·소통 공간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청년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올해 청년경제국과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청년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전업청년 웰컴박스 △문화예술 패스 지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성공적

영주·귀화 과정 진입 필수적 기반 마련

군산시가 현재 운영중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으며 3학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학기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 3학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외국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3학기는 이전 학기와 달리 3단계인 중급1 과정을 추가로 배정했다. 외국인 수강생에게는 영주 및 귀화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율리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 자격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학기부터 3학기까지 누적

이용 수강생은 197명이며, 국적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등 그 외 13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이나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입영 청년 입영지원금 지급 '호응'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올해 182명·1820만원 지원

정읍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총 182명의 청년이 18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지역 청년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

해 2023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며, 입영 전은 물론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입영 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가족 등이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앱(chak)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따뜻한 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군 입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잊지 말고 입영지원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일부 시설 시민에 개방

도서관·체육관 등 5곳 문화체육 저변 확대 기대

익산시민은 물론, 누구나 육군부사관학교 주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여산면 육군부사관학교가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학록도서관 △국립전사박물관 △계백관(체육관) 등 주요 시설 5곳을 전면 개방했다.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육군부사관학교 측과 함께 시설물 개방을 위한 협의와 준비 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인근 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학록도서관'은 3만 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열람실과 어린이 자료실, 시네라이브러리를 갖춘 시설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력까지 자랑한다.

'국립전사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전사(戰士) 주제 박물관이다. 6·25전쟁 기념실을 비롯해 호국영웅 기증품 등 1,796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계백관'은 2023년 새로 문을 연 체육관이다. 전투체력 단련 트랙과 함께 외출 오르기 기구, 탁구장, 베드민턴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갖췄다. '계백공원'은 익산시의 사업 지원을 받아 2023년 조성된 주민 친화형 공간이다. 부사관 계급장과

방패 문양에 착안해 설계된 공원에는 산책로와 휴게공간, 영웅광장이 마련돼 있어 일상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며 회복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들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단체 이용 시 부사관학교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객은 위험소 앞 안내소에서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출입증을 패용해야 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부대시설 개방은 오랜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와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10월 31일까지 실시

정읍시가 임산물 수확기와 추석 성묘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추석 명절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묘지 주변 불법 벌채와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현

장 순찰과 드론 감시, 시민 제보 접수를 병행하며 불법 행위 차단에 집중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숲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주요 부패 취약 분야 이행사항 공유

군산시는 15일 청렴 시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제2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조금 분야에서 참석자들은 보조사업자 및 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공통 저해 요인을 함께 살펴봤다. 또한 저해 요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개선방안과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한 성과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보통e를 보탬' 사이트 개설, 체크리스트 제도화 등 실무 중심의 개선 조치가 추진된 것도 보고받았다.

다음으로 살펴본 인사 분야 역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보보안'으로 필수 보직 기간 미만 근무자의 정보를 엄격히 심사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개선한 점 △'인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320여 명의 참석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신을 해소한 점 △'승진 인사 사전심사의 회의' 도입으로 직렬 조정과 승

진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직문화 분야 성과에서는 아젠다 토론, 노사 공감 토크콘서트, 소통하는 시티 군산·당나귀 프로그램·익명토론포럼 등 다양한 소통 채널로 직원 의견이 실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꼽혔다.

업무지시 행동규범 제정, 회의의 멈춤의 날' 시범운영, 고위직 청렴 교육 및 친절 공무원 사례 홍보 역시 추진 성과로 공유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렴도 향상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특히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있어 제가 중심이 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소통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종합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물, '추석맞이 기획전' 명절 선물 간편하게

익산시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돕기 위해 '익산물 추석맞이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익산물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사과와 배, 머스크멜론, 샤인머스켓, 꾀꼬리, 혼합 선물세트 등 지역 특산물 선물박스를 시중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익산시는 자체 순화·수집 배송 체계를 활용해 주문 당일 신선한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고 있어, 명절 선물 준비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획전 참여자는 회원가입 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추석 기획전 품목은 최대 20% 할인이 주어지며 구매금액의 5% 포인트를 적립한다.

7,000원 이상 무료배송 등으로 실속 있는 명절 준비가 가능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기획전은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명절 선물 준비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안전 점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협력

정읍시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의 작업장과 숙소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와 인권 보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농가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숙소와 작업장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정읍에는 190여 농가에 약 7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언어소통도우미 2명을 배치해 '소통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을 돕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운영 실태 점검으로 건전한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청춘 실험실 등 청년 소통·공감 기반 정책 성과 인정

부안군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부안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2년 연속 소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2018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으며,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특히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지원 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한다.

부안군은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사업 △결혼장려금 및 출생축하



부안군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부안군>

금 지원 △청년 행복UP플러스 운영 △근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청춘 실험실·부스돌 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참여예산 학교, 청년포럼 등 정기적인 소통 장구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

책 과정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수배 청소년 드론축구대회 성황

전국 16개 청소년 팀 출전

고창군이 지난 13일 신림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고창군수배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과 많은 관람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청소년 드론축구팀이 출전해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거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드론축구는 수비수 4명에 공격수 1명 등 5명씩으로 구성된 두 팀이 3m 공중에서 움직이는 드론볼을 조종하며 겨룬다. 13m 떨어진 양편 원형 골대에 드론볼이 통과하면 득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음과 불빛을 내며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드론볼, 축구공처럼 생긴 것이 박진감을 자아냈다. 드론볼끼리 격하게 부딪힐 때는 조종하는 선수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특히 드론 특유의 빠른 기동성과 정교한 조작이 어우러진 경기는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겨주며 "드론축구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소년들의 패기와 열정이 고창의 하늘을 더욱 빛나게 했다"며,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가 특별한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문화예술과·담양 문화체육과 연대 교류강화 고창사랑상호기부

부안군은 지난 12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군 문화예술과와 담양군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들이 100만 원씩 고창사랑 상호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담양군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부안군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행정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양 기관은 지역 간 우호와 협력의 상징으로 고창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기부에 뜻을 모았다.

기탁식은 부안군청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직원들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부서 간 연대와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

윤재득 담양군 문화체육과장은 "부안군의 창의적인 문화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 간 우애는 물론, 문화행정 교류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인숙 부안군 문화예술과장은 "기부를 매개로 지자체 간 신뢰와 연대를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실무부서 간 소통과 상생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총 280명에 1억5150만원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전북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민 공익수당으로 280명에게 1억 5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30~60만원이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2명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어민수당은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카드형 신청자는 본인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 신청자는 읍·면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에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어민공익수당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이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고창 벼멸구 예찰·방제 점검

농촌 현안 애로사항 지원 약속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11일 고창군 신림면 농업현장을 방문해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벼멸구의 급속한 밀도증가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고온의 영향으로 벼멸구가 날아오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약 10일정도 빨라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각 지역의 예찰과 방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승돈 청장은 지역 농업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벼 재배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 어려움을 들었다. 또 농촌의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긴급 공동 약제 지원, 민·관 합동 예찰 및 중앙-지방 합동 예찰 추진 등을 통해 벼 병해충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보건소·실명예방재단 17일 노인 대상 무료 안검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보건소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력해 오는 17일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무료 안(眼)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60세 이상 지역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안과 전문의의 진료 아래 △문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등 정밀검사와 상담을 통해 주요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인공눈물, 안약 등을 처방하고 돋보기도 제공한다. 특히, 수술이 추가 진료에 필요한 경우 자격 요건에 따라 수술비 지원 등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안검진은 시력 저하와 실명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눈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방과후아카데미 담양서 '청소년 체험 여행' 진행

고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청소년 여행 프로젝트(내일을 그리는 여행)'에 선정돼 담양군 일대에서 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관광활동에 제약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과 관광체험을 연계하는 문화관광 체험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30명이 참여한 이번 체험은 곤충박물관에서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다양한 곤충과 생태를 학습하고, 환경보전과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쿠키클래스에서는 팀별로 피자, 쿠키, 케이크를 직접 만들며 협동심과 창의성을 발휘했고, 제과·제빵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평소 곤충에 관심이 없었는데 해설을 들으며 관람하니 재미있고 알차게 배울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들어서 피자와 쿠키가 더 맛있었고,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정현 고창군청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체험은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들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진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사업 철저 대응" 강조

간부회의서 축제·행사 안전대책 마련 당부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사전 검토,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 관리, 가을 축제 안전관리, 용역 추진 관리 등 군정 핵심 현안에 대해 전 부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권 군수는 최근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언급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우리군 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중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영 이후에도 안정적인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쟁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성과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안 국가유산 야행, 곰소갯길축제, 곰소만 왕새우축제, 붉은노을



부안군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사전 검토,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 관리 등 군정 핵심 현안에 대해 전 부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축제 등 가을철 축제·행사와 관련해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교통·화재·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 악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고,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군수는 부서별 정책 용역 추진과 관련해 "용역 결과물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반영해 정책 수립과 사업 실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최선'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안전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5일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근거한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분석·평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로,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차원순환과(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건설과(도로관리사무소) △농촌지원과(농기계임대사업소) △기술보급과(도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미생물배합실) 등 4개부서 소속 7개 작업장이다.

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이번 측정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노출이 우려되는 공정에 대해 신속히 개선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폐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시 시장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폐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실무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읍·면·동 농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15일 2025년 하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농지대장 발급 및 관리 지침, △전산시스템 활용, △농지대장 정비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농지대장은 지난 2022년부터 기존 농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돼 필지별 체계로 전환됐으며,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농지의 집중 정

비가 추진되고 있다.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지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정확한 농지 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돼 농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농정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지대장 담당자들이 농지대장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 농지 예방 등 내실 있는 농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농지정보 데이터 유지와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순창군, '일 구하는 날' 취업박람회 개최

19일 개최 20여개 기업 현장면접 일부기업 월300만 이상 급여 제시 청년·중장년·경단녀까지 아우러

순창군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2025년 취업 박람회 - 순창군 일 구하는 날'을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제조, 건설, 복지,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하고, 간접참여 기업도 36개에 해당된다. 일부 기업은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제시하며, 정규직 채용과 안정적인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곳도 다수 포함돼 있다.

행사장에서는 기업별 채용 정보와 근무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묻고, 채용 절차와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두피 탈모 진단, 행운팔찌 만들기 등 구직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층 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채용의 장"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현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제1회 공공승마장 전국승마대회 '열기'

총 14개 종목 선수 100여명 참가 말산업 모델·경제 견인 가능성 보

완주군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완주군 공공승마장에서 열린 '제1회 완주군 공공승마장 전국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완주군에서 전국 규모로 열린 첫 공식 승마대회로, 전국 각지에서 선수 100여 명과 마필 80여 두가 참가해 장애물, KHIS-7 등 총 1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한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한 코치진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완주를 방문, 숙박·음식 등 지역 산업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대회는 승마와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서 완주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산마와 유소년



완주군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완주군 공공승마장에서 열린 '제1회 완주군 공공승마장 전국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완주군>

대상 종목의 비중을 높여 국내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완주군은 승마 대중화와 농촌형 말산업 모델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를 현장에서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주=김명곤기자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말산업 특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승마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가치 실현 '추석 공감마켓'

14개 기업 참여 50여종 할인 판매 합리적 가격 구성 지역 상생 도모

남원시는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로비에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와 남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 주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 '추석 명절 공감마켓'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감마켓은 남원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14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과와 강정, 조청, 누룽지, 장류, 전통주, 기름, 치즈떡, 도

토리묵, 김부각, 추어탕, 수제 과실차 등 1~5만 원대, 50여종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모든 제품은 남원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해 생산됐으며, 건강하고 정성이 담긴 먹거리로 명절 선물은 물론 일상 소비재로도 손색이 없어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원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가치 실현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민이 직접 생산한 우수한 사회적

경제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마켓은 남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추석 선물 세트 주문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지속되며, 택배 마감일 또한 26일이다.

관련 문의는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063-620-5638)으로 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발효문화 세계 교류의 장...국제관광포럼 성료

200여명 참여 '장문화' 세계화 논의 학술대회서 발효·관광 연계 모색

순창군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쉐넨대 대강당 및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 순창 발효문화 국제관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창발효관광재단과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공동 주최, 관광콘텐츠학회와 한국호텔리조트학회 주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순창군이 후원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장 담그기 문화'를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러시아, 몽골, 중국 등 국내외 발효·관광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국제 교류의 장이 됐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김현환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발효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기념 공연과 함께 본격적인 포럼의 막이 올랐다.

류인평 추진위원장(전주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발효문화는 순창의 뿌리



순창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쉐넨대 대강당 및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 순창 발효문화 국제관광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자산"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순창이 발효문화 국제관광 거점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 열린 국제학술포럼에서는 △ 발효문화와 관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과 관광을 주제로 한국·베트남·러시아·몽골·중국 학자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발효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관광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마지막 날에는 발효테마파크 탐방, 강선산 걷기, 장류 만들기 체험 등 현장 프로그램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순창의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국제포럼은 순창 발효문화가 세계인과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발효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청년친화현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정책·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참여형 청년정책' 호평

완주군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제8회 청년친화현정대상'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청년정책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청년친화현정대상'은 청년단체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고 국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청년 권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

에 수여된다. 평가는 청년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진행된다.

완주군은 △청년종합지원센터 조성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이 장단 활동 지원 △청년참여예산 운영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청년이 지역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참여형 청년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스마트 영농관리서비스 구축 중간보고회

드론·AI 기반 영농관리 '농부' 핵심 기능 등 중간 성과 공유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5년 스마트팜리더십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을 통한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부(Nong-View)' 구축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9일 남원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 전지역의 드론 영상데이터 구축, AI 분석을 수행하고 △조수료 생산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비닐하우스 운영관리

이번 중간보고회는 남원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드론 영상 데이터 구축, AI 기반 영상 분석 체계 등 '농부' 핵심 기능별 중간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드론 영상과 AI 기술을 통해 조사료 미재배 면적 167ha(약 11%)를 정확하게 식별했다. 이를 통해 약 1억7천만원 규모의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조사료 재배지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도 71% 줄이는 등 행정 효율을 크게 높였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통합 반대 출근길 캠페인 재개

15일 오전 삼례농협 사거리서 완주청년단체 등 30여명 참여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이경애 의원이 15일 오전 삼례농협 일원에서 출근길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유 의장과 이 의원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원회, 완주군 라운칭년세마을연대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서 부채 6,000억, 완주군민은 거부한다!', '강제통합 결사 반대, 잘 살고 있는 완주군 함께 지켜요!'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주민들에게 통합 저지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영석 전)완주지킴이 본부장은

"통합 논의는 군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나 충분한 공론화나 설명이 없었다"며 "실질에서 추진되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군민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통합이 되면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까 걱정된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 고맙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통합은 행정 편의나 외형 확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군민이 주체가 되는 토론과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민 동의 없는 통합이 완주의 자존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단호히 밝히며, 군의회가 끝까지 군민과 함께 완주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아동권리영화제 31편 본선 진출...113편 접수

10월 25일 군청 일원서 개최 아동·청소년 진로체험부스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오는 10월 25일에 완주 아동권리영화제를 개최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돼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권리를 표현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온 이 영화제는 올해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 나의 목소리 우리가 만드는 세상,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총 113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 73편이나 출품됐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전국 40여 개 도시에서 보내온 작품들은 예심을 거쳐 최종 31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예심을 통과한 본선 진출작 31편은 10월 25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상영된다. 심사에는 오동진 평론가를 비롯해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창 영화감독, 김지동 전주MBC프로덕션 대표가 참여한다.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진로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12개의 부스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영화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외국인 유학생 전통문화·AI 융합 교육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유희태)과 우석대학교 교육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천홍)는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거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1기(9월 8일~10월 27일)와 제2기(11월 3일~12월 15일)에 걸쳐 총 12주간 진행되며, 기수별 65명씩 총 130명 내외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통 서예 체험 △완주군 지역 문화 탐방 △생성형 AI 기반 피지컬 AI 실습으로 구성됐다. 특히 피지컬 AI 과정에서는 드론, 로봇, 3D 스캐너, 3D 프린터, 레이저 각인 장비 등을 활용해 최신 기술과 전통 문화, 완주군의 역사 자원을 연계한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피지컬 AI를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완주군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홍 우석대학교 교육발전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외국인 학생과 가족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노암동 생명존중안심마을 신규 지정...15일 현판 전달식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에서는 15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추진되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암동이 신규로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 스스로 생명존중 문화를 실천하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성되는 마을로, 남원시 내 기존 7개 지역에서 올해 2개 확대해 총 9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로,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다양한 전략사업이 추진되며 현재 남원시는 76개소 참여기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시 관계자,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현판 전달식과 함께 자살예방 홍보, 심리상담 서비스, 우울 및 자살위험 선별검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억 8천만원 부과

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5,510건에 대해 총 13억 8천만 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를 소유한 이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6월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자동납부 방식 또는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해도 300~500원의 세액 공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500~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송달 방식은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진안고원물, 추석 파워세일 전 품목 30% 할인

진안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진안고원물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1일간 전 품목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든 고객에게 할인쿠폰이 발급되며, 쿠폰을 장바구니에서 선택하면 즉시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진안고원물은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진안군수 품질인증 홍삼제품과 사과 등 과일류도 같이 세일에 들어가 추석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할인쿠폰은 행사 기간 동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할인 대상은 진안고원물 내 모든 품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고원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전주 월드컵경기장서 '진안군의 날' 운영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지난 13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진안군의 날'을 운영하며 '2025 진안홍삼축제'를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장을 찾은 2만 3천여명의 관중과 TV 중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안홍삼축제의 매력을 소개하고, 진안군을 널리 알렸다.

경기장 입구부터 진안홍삼축제의 홍보 열기가 '후끈'했다.

경기 시작 전인 오후 5시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 동문 입구에 설치된 진안홍삼축제 홍보부스에서는 홍삼액 시음회와 '3초를 잡아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많은 축구팬들이 부스를 방문해 축제 정보를 확인하고, 시음과 이벤트를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영환 진안부군수와 동창회 진안군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들에게 축제를 홍보하며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자살예방의 날 맞아 '생명사랑 숲길 걷기' 진행

장수군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천천면 치유의 숲에서 '생명사랑 숲길 걷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 9월 10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제정한 날이며 장수군은 이 취지에 맞춰 매년 기념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 관련 기관 종사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산림치유지 도사의 안내에 따라 숲길을 함께 걸으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했고, 이어 심인물 명상과 숲·건강 테라피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숲길 걷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살예방 주관을 운영해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치즈아이랜드' 조성 본격화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 총사업비 93억원 투입

임실군이 2023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인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2일 치즈아이랜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치즈 및 낙농을 주제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은 제7차 전북권 관광 개발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 도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93억원이 투입된다.

시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故 지정환 신부와 임실치즈의 발자취를 간직한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옆에 위치한다.

주변 자연경관 훼손이 없도록 언덕을 살린 지중화 형태로, 지하 1층(연면적 약 1,300㎡)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공모형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인 관광호텔 조성사업, 민관상생투자협약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군은 치즈를 테마로한 전국 유일의 체험·놀이·휴식이 결합된 복합 관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관광 트렌드인 체험형 놀이시설 수요에 맞춰, 관내 어린이 가족은 물론 임실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청을 활용한 즉석 체험 등 차별화된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35사단, 6탄약창 등 관내 군 부

내 군무원, 임실·신평·오수 농공단지 근로자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 사업은 올해 안에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치즈테마파크의 기존 인프라에 더해 어린이를 동반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그간 어린이 전문 놀이 시설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더불어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제30회 필봉마을굿 축제

국가무형유산공명한자리에

2025년 제30회 필봉마을굿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임실필봉문화촌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필봉마을굿 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공연 예술제로 임실필봉농악을 비롯한 국가 무형유산 공연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신명 나는 축제이다.

주요 행사로는 무형유산 초청공연, 중국민족예술단공연, 창작연희극, 필봉야류 달굿, 전국전통연희경연대회, 농악 역사 기획 전시 등이 마련되어 있다.

임실필봉농악을 비롯해 무형유산 초청공연에서는 진도 씨깡, 서울

송파산대놀이, 김천 금릉빛내농악, 인천 은율탈춤, 대구 날피복춤 등 다양한 국가무형문화재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축제에는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전국전통연희개인놀이 경연대회와 전국양송농악 농악 경연대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필봉을 느낄 수 있는 굿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필봉마을굿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일정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외는 필봉문화촌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중간보고회

유통 효율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진안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최문규 사장이 중간 설계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사업'은 관내에 산재한 인·홍삼 판매장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판매 기반을 마련하고, 진안홍삼의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진안IC 맞은편에 위치한 단지는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84㎡, 지상1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인·홍삼판매장 24개소를 비롯해 방문객 편의를 위한 푸드마켓, 카페, 전문음식점,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감도

<사진=진안군>

특히 단지 중앙부에는 다기능 광장이 조성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바둑분수를 비롯해 직거래장터, 플라마켓, 지역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실시계획 단계에 있으며, 올해 연말 착공, 26

년말 준공 및 27년 판매장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홍삼 판매장 입주수요, 시설 배치, 부대시설 구성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으며, 주민설명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숲속으로 영화소풍' 개최

향로산 자연휴양림서 개최

영화와 산림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숲속으로 영화소풍"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다.

산림청과 무주군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재)무주산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숲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주제의 야외 영화 2편(9. 19.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 / 20. "윙키")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문화 체험, 신나는

숲속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산림문화 체험으로는 △그물망 놀이터&해먹, △열매 액자와 친환경 가방, △도마 만들기, △걱정 인형 열쇠고리, △천연 해충 기피제, △휴대전화 거치대 만들기, △산림 문화 100선(산림청이 선정한 숲, 나무, 산, 들, 풀, 꽃 등 자연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100권), △달리는 책 놀이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책, 듣는 책 등),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모노레일 체험 등이 마련된다.

19일 숲속 공연에서는 '뮤즈그레인'과 함께 "자연의 소리로 노래 만들기"를 해 볼 수 있으며 20일에는 '로로'의 "소리에 소리를 엮다", '함서울'의 "더

해프닝소 마이드림(My Dream)"이 펼쳐진다.

임정의 무주군청 태권문화와 문화정책팀장은 "자연특색이 무주에서만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영화소풍을 준비했다"라며 "오는 주말에는 무주에서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주는 건 강한 안도와 다양한 영화, 공연, 체험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꼭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영화와 산림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숲속으로 영화소풍"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무주산골문화재단으로 하면 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의회, 국도 26호선 보행개량 강력 촉구

안전한 도로망 구축 필요

진안군의회가 15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이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 26호선 보행개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행개량은 전주와 진안, 무주, 장수를 연결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내륙권의 핵심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열악한 도로 구조로 방치되어 매년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고개'로 불리고 있다.

특히 급경사·급커브·시야 확보 불량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상존해 겨울철 이면 적설과 결빙으로 차량 통행이 마비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무너지는 등 군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대표발의한 이목 의원은 "변화는 계획이 아니라 착공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신속한 실행 없이는 행정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안은 내년 제63회 전북도민선거 개최와 2026-2027 진안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수십 년간 방치된 '죽음의 고개' 보행개량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지체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최훈식 군수,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1일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1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방위적인 사전 안전 점검과 대응체계를 살폈다.

이번 점검은 18일 축제 개막을 앞두고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축제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된 사과마당과 한우마당을 중심으로 축제장 전반을 둘러 보고 운영 준비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최 군수는 사과마당과 한우마당, 무대, 체험장, 편의시설 등 주요 공간을 순회하며 안전관리, 동선 확보, 응급대응 체계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방문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공무원과 경찰,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지시했고 구조물 안전성과 접근성, 긴급 상황 시 비상 대우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의회, 군민과 함께한 4일간 소통 여정 마무리

현장중심의정활동 펼쳐

임실군의회가 지난 8일 신평면을 시작으로 10일 관촌면·운암면, 11일 신평면에서 진행한 2025년 순회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제9대 의회 공약 사항인 순회 간담회는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소통 행사로, 읍·면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면 이장단 및 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

으며,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원 전원이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현장에서 70여 건의 제안과 건의를 접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신평면 주위 둔사로 인한 악취 문제 △연 3-4회 드론 방제 요청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요청 △마을기업 유지·관리 대책 마련 요구 △용운리 상수도 설치 요청 △각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 배치 요청 등이 있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기대

장수군은 불안정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2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6종에 대해 유형별 사용량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1만 리터까지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받아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

문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심사 후 농업인 개인별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이 최근 농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구천동농협-부안중앙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부안중앙농협이 지난 15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3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

이날 기탁식에 함께 한 김성근 무주구천동조합장은 "부안중앙농협과 구천동농협 간 상호신뢰와 지역발전을 바라는 임직원들의 마음이 교차 기부의 동력"이라며...

부안중앙농협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금 제 시행 이후 해마다 기금을 모아 2023년에는 330만 원, 2024년에는 310만 원을 상호기부해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완주군,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진행

완주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홍보했다.

혈액의 건강한 순환을 의미하는 '레드서클(Red Circle)'은 심뇌혈관질환 인지율이 낮은 2040 청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조기 예방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은 전국 단위 합동 캠페인이다.

완주군보건소는 우석대학교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레드서클존을 운영하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인력이 1:1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OX퀴즈 이벤트를 마련하여 건강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퀴즈 참여자에게는 혈관지킴이 기념품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김명곤 기자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중앙회, 청소년 계도활동 전개

청소년 보호에 앞장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중앙회 산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12일 덕진광장을 중심으로 전북대 구정문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진행했다.

덕진구청과 광역협의회와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폭우가 예상됐지만 아랑곳 없이 청소년이 찾을 수 있는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계도활동을 위해 업소를 방문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을 기

반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안내스티커 부착명령 등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2개 조로 편성돼 각 음식점과 편의점에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사항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 방지를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홍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유해환경 현장순찰감시주된 활동은 △현장순찰활동을 통한 자율정화 활동을 유도하도록 계도 계몽하고 자율정화 활동, 미개선 시 기관에 행정고발하게 된다. 특



히 모니터 활동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이서원 감시팀장은 "최근 들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선도활동이 요구되며 업소 및 시설업체들은 청소년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며 참여와 동참을 전했다.

/장정철 기자



김제 신풍동지사협, 세 번째 천사무료급식소 봉사활동 펼쳐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호길)는 15일 김제시 천사 무료급식소에서 올해 세 번째 봉사활동을 펼쳐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박정완 신풍동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0여 명이 참여해 배식 및 설거지를 맡아 급식소 운영을 도왔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최호길 위원장은 "세 번째 봉사에 나서면서 어르신들과 더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나눔이야말로 우리 지역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정완 동장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이웃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 봉동여성의용소방대, 생활안전 강의경연 전북 1위

이정란 부대장, 전국대회출전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봉동여성의용소방대 이정란 부대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분야 강의경연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하여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정란 부대장은 전국대회 무대에서 완주소방서의 명예를 걸고 다



시 한 번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전북 대회에서 봉동여성의용소방대는 '봄철산불예방과 안전수칙'을 주제로 한 생활안전 강의를 선보이며 전문성과 현장감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진행되는 발표

인 만큼 이정란 부대장은 수개월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발표 능력을 갈고 닦았으며, 완벽한 강의 준비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교관양성과정을 교육한 민간 전문강사인 더비저니스트 대표 김은경을 섭외해 맞춤형 지도를 받았다.

전문강사 김은경 대표는 소방 분야뿐 아니라 보건복지인재개발원 강사양성과정, 폴리텍대학 교수 강의역량 향상과정 등 다수의 강사양

성과를 진행해 온 베테랑으로, 이번 강의 내용과 발표 스킬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전북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서는 만큼 완주소방서와 봉동여성의용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상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공무직지부, 제2회 공무직 환경캠페인 실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공무직지부는 지난 13일 장수읍 한우랑사과랑 축제 공연장에서 '제2회 장수군공무직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운동수 지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40여 명이 참여해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엔 날씨 속에서도 우비를 착용한 채 축제장 주변과 장수읍 시가지 곳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특히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축제 제장 인근 배수구 빗물받이에 쌓인 낙엽을 치우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참여자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정결활동을 진행해 다가오는 축제를 맞아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글로벌학산고학생들, 정읍 어르신들에 재능나눔 활동

정읍시가 농촌재능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영원면 서부복지센터에서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학산고등학교 보건간호과·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미디어콘텐츠과 등 7개 학과 학생 50명과 교사 10명이 참여해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현장에서는 건강비누 만들기, 학산베이

커리 나눔, 다식 만들기, 메이크업과 한복 코디, 장수사진 촬영, 압화 티코스터 제작, 건강체조, 다육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자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체험을 제공했고, 어르신들은 손주 같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읍=김정민 기자



남원 운봉읍, 독거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남원 운봉읍은 '1일 1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왜소증 장애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 건물은 노후된 주택으로 세면장 내부 습기로 인하여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여 건강 등 생활안전에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했다. 고행지작목반시험장 강찬호 시험장의 재능기부로 세면장 내부 전체에 항균 페인트칠 작업을 실시했다.

강찬호 시험장은 습기와 오염으로 인한 위생문제로 호흡기 질환 등이 우려되었는데 정비를 통해 낡은 공간이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어르신은 "그동안 생활하기에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Advertisement for JBT recycling campaign with text: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and images of recycling bins for paper, plastic, and glass.

〈一事一言〉



역사의 법정에서 조희대 사법부, 국민에 답하라

김관춘
논설위원

사법부는 민주 헌정의 최후 보루라 불린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사법부는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여론이 고조되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국민 정서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행태는 사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위험한 신호다.

헌법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입법 사항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그들은 법률과 확립된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와 '사법 독립'을 앞세우지만, 그 실상은 내란법들에게 재판 지연이라는 방패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 흘리며 쟁취한 헌정 질서 위에 손가락을 얹듯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정작 그 독립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더 이상 이 위선과 법통의 간교함을 묵과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정치적 재판에 개입하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사례다. 지난 5월 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겪었던 재판을 단 7

일 만에 파기 환송시켰다.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법원 심리를 일주일 만에 신속 처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정치적 생존이 위협 받았고,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 자체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 과정에 개입해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 사건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었다. 국민의 손에서 나와 할 권력이 법복 입은 몇몇 범죄자들의 손에서 좌지우지 될 뻔한 것이다. 이는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권력의 전횡'이었다.

검찰 독재 시절, 수많은 판사와 재판부가 검사 패거리들의 압박과 고성, 협박에 시달릴 때도 사법부는 침묵했다. 윤석열 총장 시절의 판사 사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도 대법원은 입을 굳게 닫았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다. 사법부 수장이 되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들이 반복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로 직무에서 배제되었을 때, 법원은 일주일 만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복귀를 허용했다. 이후 1심에서조차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 2심은 절차 유효하며 합당한 무죄 판결을 내놓았다. 만약 그때 사법부가 최소한의 정의와 일관성을 지켰다면 123 내란 같은 역사적 치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

금 횡령 사건도 마찬가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은 돌연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너뜨렸다. 결국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범죄를 덮어주고, 그 세력에게 더욱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법의 세탁소'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제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태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내란법 구속을 취소하거나 재판을 질질 끄는 행위는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두고 여전히 '사법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고 있지만, 그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 자신을 포함해 내란 세력 보호를 위한 자기방어적 장막일 뿐이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 앞에서는 한없이 굴종하면서,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에게는 권위적으로 굴며 사법부 독립 타령을 늘어 놓는다. 이는 독립이 아니라 기회주의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배신이다. 깨어있는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사법의 내로남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책임의 최정점에서 있다. 국민은 이

제 묻는다. 진정한 사법 독립을 위해 누가 먼저 물러나야 하는가? 대법원장이 국민을 등지고 내란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사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오히려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회복의 출발점이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났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신뢰를 저버린 순간 더 이상 민주주의의 보루가 아니다. 이제 사법부는 국민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이며, 사법부 스스로의 자기혁신이다.

국민은 기억한다.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법부의 행태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알고 있다. 진정한 사법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부의 자기기만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그 책임의 무게를 외면하는 순간, 사법부는 역사의 법정에서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다.

사설

AI·데이터 혁신으로 여는 전북의 미래

전북자치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산업 전환을 본격화하며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이는 농생명 및 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생성형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지역의 산업 지형 역시 급속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전북은 이에 대응해 AI·데이터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주력산업과 AI 융합, AI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세 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조례'를 제정,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뿌리다. 전북은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 5곳과 데이터안심구역, 가명정보 결합지원센터 등 10곳의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SK 데이터센터 유치, 정보보호클러스터 조성까지 더해 국가적 수준의 디지털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의 모든 전환은 데이터와 연산 인프라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투자다.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에서는 AI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2028년까지 1천800억 규모로 추진되는 'AI기반 농생명 3대 사업'은 맞춤형 식품제조, 원격자율작업, 자율주행 농기계 등 첨단기술을 실증해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모빌리티 분야 역시 AI 접목을 통해 제조공정 혁신을 꾀하고 있다. 국비 229억이 투입되는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실증'은 단순한 기술연구가 아니라 지역 제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프로젝트다. 홀로그램산업과 양자기술 분야의 도전도 주목할 만하다. 익산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937억이 투입되는 홀로그램산업은 기술개발을 넘어 콘텐츠 서비스와 사업화 실증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 모든 혁신의 토대는 결국 사람이다. 전북은 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 IT 인재 양성 교육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는 IT 취업 희망자를 위한 디지털 최고위 전문교육 과정까지 개설한다. 매년 수천 명의 전문 인재를 배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면, 전북은 기술 수요에 걸맞은 인적 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AI와 데이터는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다. 전북의 전략은 단순한 유행 추종이 아니라, 지역의 주력 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동시에 키우는 장기적 도전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북이 이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대학,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금 AI와 데이터 인프라, 인재 양성을 삼축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완성한다면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신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이다.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의 여정이 전북의 미래를 건 인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소모사실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전적류
-지정일 - 2019년 12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정읍시 동학로 742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8-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친구 / 문정희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누가 몰랐으랴	언젠가 이 손이 낙엽이 되고 산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할 겨를도 없이 어느 하루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끼리도 끝까지 함께 갈 순 없다는 것을... 진실로 슬픈 것은 그게 아니었지	그 언젠가가 너무 빨리 온다는 사실이지 미처 숨들릴 틈도 없이	잠시 잊었던 친구처럼 홀연 다가와 투옥 어깨를 친다는 사실이지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 여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데', '절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의 변화,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0



모두가 기다린 특별한 가을 판타지, 김제지평선축제

10월 8~12일 벽골제 일원서 5일간 펼쳐지는 가을 대축제

민족 최대 명절 추석,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갈까 고민된다면 김제를 주목해야 한다. 벽골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린다.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이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는 올해 추석 황금연휴와 맞물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 화려한 야간 공연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최고의 선택, 3대가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축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단순히 차례와 성묘만의 시간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되도록 이번 김제지평선축제는 전통과 가족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준비했다. 먼저 한가위 가족오락관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배움의 놀이 공간으로 전통 게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씨리공이 대박 터트리기는 운동회의 추억을 되살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지평선축제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아궁이 쌀밥 짓기는 고무마, 콩 등 지역농산물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지평선 굽스와 함께 새롭게 보완되어 참여 가족들의 식사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내고, 특별히 소원을 적어 날려보는 소원연 날리기 한마당도 준비되어 있어 추석에 모인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김제에서 나는 신선한 농특산물로 직접 김밥을 만들어보는 체험과, 가족 단위로 팀을 이루어 참여할 수 있는 요리경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잊지 못할 가족의 순간을 간직

할 수 있다. 이번 추석, 단순한 휴식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로 김제지평선축제를 선택해보자.

K-콘텐츠와의 만남,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축제

김제지평선축제는 우리 전통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국내 관람객은 물론 해외의 관광객의 눈높이까지 고려해 최근 K-콘텐츠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한국형 축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축제 감성에 맞는 민속놀이로 재해석한 씨리공이 게임은 김제지평선축제의 독창성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10월 9일 국내 대항전과 10일 글로벌 대항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무대로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지역 상품권이 증정되며, 국내 대항전 우승자에게는 순금 1돈의 특별한 시상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씨리공이 달고나 만들기 체험장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외국인들이 함께 달고나를 만들며 K-콘텐츠 속 장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놀이와 현대 K-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김제지평선축제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김제만의 이야기를 담다!

김제시는 사방이 탁 트인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지리적 특색은 김제지평선축제만의 독창성을 만들어내며,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1,7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저수지인 벽골제는 김제 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지평선축제의 상징적인 배경이 되며 이에 얽힌 전설을 바탕으로 한 쌍룡놀이 무대가 펼쳐지고, 정월대보름의 풍년을 기원하는 입석줄다리기가 전통 민속놀이로 재현되며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전통문화를 전한다.

올해는 특히 단야광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축제의 중심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단야설화와 샌드아트 애니메이션 상영관을 비롯해 멀티플렉서(실감미디어) 체험관과 4D 체험관이 마련돼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

게 오감만족의 경험을 선사한다. 여기에 핑크퐁과 씨리공이 캐릭터샵, 김제 시민들이 간직해 온 소중한 기록을 담은 김제사진관까지 더해져 김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김제 출신 발명가 정평구 선생이 만든 세계 최초의 비행 시도로 평가받는 비거(飛車) 이야기 역시 주목할 만하다. 라이트 형제보다 300년 앞선 하늘을 향한 도전의 비거 전시와 드론 농구게임을 통해 유니버설스튜디오 내에서 색다른 흥미를 자극하며 재조명된다.

축제의 본질인 농경문화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벼 수확,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 등 한국 고유의 전통 농업문화를 직접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도시민들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보고, 먹고, 즐기는 김제 농특산물 한마당

김제지평선축제에서는 지역의 풍요로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농특산물 한마당이 마련된다. 고향의 맛과 정겨운 추억이 깃든 읍면동 대표 음식들과, 제2회 맛보자고 컴퍼티션을 통해 선발된 김제 관내 맛집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 경험을 선사한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디저트, 음료, 테이크아웃 메뉴들은 마중거리리에 따로 조성돼 접근성과 편의성까지 더했다.

이와 함께, 김제 쌀을 활용한 대규모 퍼포먼스로 관광객 500명과 함께 가래떡을 뽑아 새만금방조제 모양을 만들어보는 이색 체험 가래떡 대장정도 준비되어 있어, 축제의 볼거리에 흥미를 더한다.

또 다른 즐길 거리인 플라마켓에서는 개성 있는 소품과 악세사리를 구입할 수 있으며, 명품장터에서는 김제를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어, 먹고 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축제 경험을 완성한다.

축제의 미래,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김제지평선축제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이기도 하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벽골제 설화는 애니메이션으로 상영되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전용 상영관과 캐릭터 전시 공간을 통해 교육과 놀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매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뚜기잡기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운권 추첨 이벤트와 참여자 선착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며 메뚜기 조립 모형과 귀여운 모자

가 선물로 제공되며, 전년도 처음 도입된 대지아트 직라인은 올해는 양방향으로 확대 조성되어 참여자들에게 두 배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한 지평선 키즈파크는 지난해 인기였던 에어바운스를 한층 더 보완해 규모를 키우고, 주변에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추가해 더욱 풍성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 농경사 주제관에서 시작되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즌2 씨리공이 투어는 축제장 곳곳을 탐험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성취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완주자에게는 기념품도 증정되어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축제

김제지평선축제는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먹거리 공간 주변에는 다회용기 사용 부스를 설치하고 축제장 중심에 위치한 중앙마당에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배치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도입했다.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김제시가 지향하는 친환경 축제의 모델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만드는 문화를 위해 시민 캠페인도 함께 펼쳐진다. △약속 1. 함께 만나요! 추석 모임은 지평선축제장에서, △약속 2. 함께 이용해요! 셔틀버스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약속 3. 함께 웃어요! 진절할 인사와 미소로 응대하기, △약속 4. 함께 지켜요! 거리도 마음도 깨끗하게 등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캠페인은 만·이·웃·지(만나오, 이용해요, 웃어요, 지켜요)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장 곳곳, 매일매일 풍성한 이벤트가 가득

축제 기간 지평선 종이비행기 날리기, 씨리공이 대박 터트리기 등의 참여형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다양한 축제 기념품을 제공하게 되며, 또한 이번 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지평선 이동 스튜디오는 다양한 선물 보따리와 함께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방문객들과 즉석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명품장터, 마중거리, 체험부스

등 주요 판매 공간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일부 품목 10%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보다 적은 부담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김제사랑카드 사용자에게는 기존 15% 할인에 더해 현장 결제 5% 페이백 혜택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부스도 대폭 확대하여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행사장 전역에 배치된 다양한 부스에서는 간단한 참여만으로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 올해 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온 세대가 함께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의 빛, 지평선을 밝히다

축제의 밤은 빛으로 시작해 빛으로 완성된다. 축제장 입구인 신정문에는 새빛광장 LED타워가 설치되어 환영 문구와 홍보영상은 물론, 주요 프로그램과 현장 안내까지 제공하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밤이 깊어지면 축제장 곳곳에서 LED 비아트가 불을 밝히고, 벽골제 제방을 따라 펼쳐지는 달빛경관과 웅장한 쌍룡 조형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며, 그 뒤를 이어 매일 밤을 즐겁게 해주는 공연들과 함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판타지쇼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에 담긴 빛은 단순히 축제장을 밝히는 조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김제의 밤을 미래를 상징하며, 축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 12월, 2025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기획력과 운영, 콘텐츠의 완성도, 방문객 만족도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도 다시금 입증한 만큼, 올해 김제지평선축제는 더욱 빛나는 밤을 만들어갈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는 민족 대명절 추석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가족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특히 모든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발전하는 축제를 위해 끊임 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